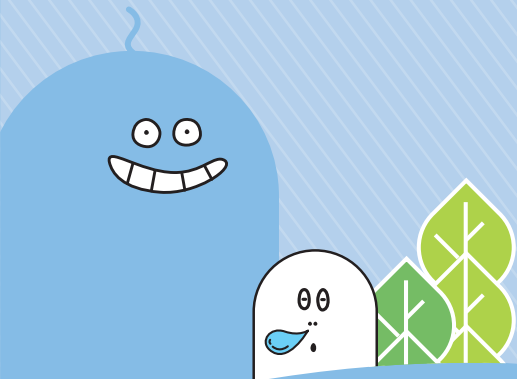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3·1

초등 국어



◦ 진도 교재	2
◦ 평가 교재	28



정답과 해설

진도 교재

○○○○○○○○○○○○○○○○○○○○

독서 단원 읽은 책을 소개해요

수행 평가

8쪽

- 예 책의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책 내용을 짐작해 본다.
- (1) 예 (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떠올리기
(2) 예 『허허 할아버지』
(3) 예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허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 받았다.
- 노랫말로 소개하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허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불러 보고 싶기 때문이다.

1. 생생하게 표현해요

핵심 확인 문제

10쪽

- 감각적 표현 2 (3) × 3 ×
- 마음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1쪽

- (1) ② (2) ① 2 ③ 3 부웅부웅
- ① 5 현서

- 가에서는 꿀벌이 꽃송이를 돌며 꿀을 모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꿀벌이 신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닐 때가 떠올랐다고 하였다.
- 꿀벌이 부웅부웅 날아다닌다고 표현하였으므로, 꿀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은 ‘부웅부웅’이다.
- 준우는 꿀벌이 꽃송이 주위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였다고 생각했다.
- 지혜는 꿀벌이 움직이는 모습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했고, 준우는 꿀벌이 날아다닐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내서 말했다.

소단원 1

기본 감각적 표현 이해하기

12~13쪽

- 꽃봉오리들 2 ③ 3 ④
- 예 ‘푸하하하’라는 표현을 넣고 읽으니 꽃봉오리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 준호 6 쉬엄쉬엄
- (1) ③ (2) ② (3) ① 8 ①, ⑤
- 예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떠오른다.

- ‘산뱃나무 가지에 / 붕긋붕긋 꽃봉오리들’이라고 하였다.
- 봄 햇살이 꽃봉오리를 비추는 모습을 ‘간질간질’ 봄 햇살이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시에서는 꽃봉오리가 터지는 모습을 참았던 웃음이 터지는 모습으로 여겨, 곧 활짝 피어날 것 같은 꽃봉오리의 모습을 ‘참았던 웃음꽃’이라고 표현하였다.
- ‘푸하하하’라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꽃봉오리의 모습을 더 잘 떠올릴 수 있고,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읽을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채점 기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에 맞게, ‘푸하하하’를 넣고 읽을 때 꽃봉오리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내용 등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미주는 시와 관련 없이 눈이 내린 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했다.
- 시의 첫 부분에서 ‘쉬엄쉬엄 둘러보며 / 산에 오를래.’라고 하였다.
- (1) ‘상글방글’은 풀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2) ‘초록빛 향기’는 산에서 나는 냄새를 표현한 것이다. (3) ‘빠빠 빠꾸룻 / 후루 후루룻’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 ①은 하늘 가까이 높은 산꼭대기에 오른 장면과 산꼭대기에 올라 신이 난 마음에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드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고, 한 가지만 골라 자세히 써 본다.

채점 기준 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바탕으로 적절한 장면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4쪽

1 (1) 한나절 (2) 간질간질 (3) 봉긋봉긋
2 (1) 한입 (2) 출렁이는 (3) 둘러보며
3 예 할아버지와 함께 한나절 동안 공원을 둘러보
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단원 1 통합 시를 읽고 낭송하기 15쪽

1 ④ 2 ⑤ 3 ②
4 ⑤ 5 (2) ○

- 1 말하는 이는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고 있다.
- 2 친구들과 함께 줄을 넘고 있어서 신이 날 것이다.
- 3 ‘뛰어올라’도 줄넘기하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기는 하지만 감각적 표현은 아니다.
- 4 한 글자씩 끊어 읽으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의 분위기나 장면을 떠올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5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낭송하였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6쪽

1 (1) 빙글빙글 (2) 폴짝폴짝 (3) 조심조심
2 (1) 폴짝폴짝 (2) 빙글빙글 (3) 사뿐사뿐
3 예 아이들은 빙글빙글 도는 바람개비를 보면서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다.

초단원 2 기본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 좋은 점 알기 17쪽

1 (1) ② (2) ① 2 ②
3 예 미안한 마음 4 ⑤

- 1 교통안전 지킴이님과 인사하는 상황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말하였고,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들을 때에는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말하였다.
- 2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대화하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슬비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 3 같은 반 친구가 빌려 준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미안한 마음이 느껴진다.
- 4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나 말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 의미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8쪽

1 (1) 유적지 (2) 공손 (3) 조사
2 (1) 공손하게 (2) 자신감 (3) 유적지
3 예 유적지를 조사하다 보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초단원 2 통합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대화하기 19~20쪽

1 꿈 2 ① 3 (1) ○
4 (1) ① (2) ②
5 (1) 모양 (2) 능력 6 ④
7 (1) ① (2) ②

- 1 꿈 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텔’이 하나씩 있었다고 하였다.
- 2 레오는 ‘텔’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도 ‘텔’이 생기지 않아서 점점 슬펐다.
- 3 황금새가 나타나 놀란 레오가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이므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 4 (1) ‘난생처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를, (2) ‘조심스레’는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태도로.’를 뜻한다.
- 5 마법사가 레오에게 만들어 준 ‘텔’은 모양은 있으나 신비한 능력은 없는 것이었다.
- 6 레오는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 7 (1) ‘한달음’은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달려감.’을 뜻한다. (2) ‘간절함’은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을 뜻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21쪽

- 1 (1) 난생처음 (2) 한달음 (3) 간절
 2 (1) 난생처음 (2) 한달음 (3) 조심스레
 3 예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조심스레 소원을 빌었다.

소단원 2

통합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대화하기

22쪽

- 1 ④ 2 ⑤ 3 (1) ○
 4 ②, ③ 5 (1) ① (2) ③ (3) ②

- 1 가에 서울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편의점에 가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나에서 엄마는 신호등의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살펴보고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3 자전거가 달려드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린 상황이므로 속상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4 ㉠은 놀라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타이르듯이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5 (1) '차도'는 '자동차만 다니는 길.'을 뜻한다. 車 차, 道 길 도. (2) '겸용하다'는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다.'를 뜻한다. 兼 겸할 겸, 用 쓸 용. (3) '양보하다'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미루어 주다.'를 뜻한다. 讓 사양할 양, 步 걸음 보.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23쪽

- 1 감각적 표현, 생생 2 ③
 3 (1) 부어케서 (2) 부어간 4 ③
 5 (1) 엉금엉금 (2) 깡충깡충
 6 예 숨바꼭질을 하는 친구들은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후다닥 몸을 숨겼다.

- 1 감각적 표현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2 대화할 때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와 말투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3 (1) 받침이 있는 낱말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소리를 그대로 모음에 이어 발음하므로 '부엌에서'는 [부어케서]로 발음한다. (2) 받침이 있는 낱말 뒤에 뜻을 지닌 낱말이 오면 받침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꾼 뒤에 모음에 이어 발음하므로 '부엌 안'은 [부어간]으로 발음한다.
 4 '무릎을'은 [무르플]으로, '무릎 위'는 [무르뷔]로 발음한다.
 5 (1) '엉금엉금'은 '큰 동작으로 느리게 걷거나 가는 모양.'을 뜻한다. (2) '깡충깡충'은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을 뜻한다.
 6 보기 에 주어진 낱말 중 하나를 넣어 짧은 문장을 지어 본다.

채점 기준 감각적인 표현을 넣어 알맞은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단원 평가

24~26쪽

- 1 ②, ④ 2 ④ 3 푸푸푸
 4 예 산벚나무 가지에 달린 꽃봉오리들이 활짝 벌어져서 예쁜 꽃이 핀 모습
 5 산 6 ② 7 세화
 8 줄넘기 9 (1) ○ (2) ○
 10 유미 11 ③, ⑤
 12 (1) ㉠ (2) ㉠ 13 ①
 14 델 15 ③ 16 ②
 17 (1) ○ 18 ①, ④
 19 예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는 몸짓, 큰 목소리와 들뜬 말투가 어울린다.
 20 ㉠, ㉡

- 1 웃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하하하’와 꿀벌이 날아 다니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부웅부웅’이 감각적 표현에 해당한다.
- 2 산벚나무 가지에 달린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피어날 것처럼 부풀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3 웃음을 참는 모양과 소리를 ‘푸푸푸’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푸푸푸’ 뒤에 나오는 ‘잘도 참아 내고 있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4 ‘참았던 웃음꽃’을 ‘마구 터뜨려 놓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채점 기준 ‘웃음꽃이 터지는 것’은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난 것’임을 이해하여 관련된 장면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말하는 이는 산에서 나는 냄새도 맡고 새 소리도 듣고 풀꽃들도 보면서 쉬엄쉬엄 산에 오르고 있다.
- 6 ‘산에 오를래’는 감각적 표현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하고 싶은 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7 ㉠은 풀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상글방글’이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8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 9 ‘뛰어 올라’는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로,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10 시 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은 친구는 유미이다. 미주는 시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다.
- 11 친구들과 함께 줄을 넘으면서 신이 난 모습과, 줄에 발이 걸릴까 봐 조심조심 뛰어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12 (1) ㉡는 슬비가 등갯길에 교통안전 지킴이님을 만나서 인사하는 상황이다. (2) ㉢는 슬비가 담임 선생님과 조연을 듣는 상황이다.
- 13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 14 꿈 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텔’이 하나씩 있었다고 하였다.
- 15 레오는 ‘텔’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하였다.

- 16 마법사는 ‘텔’이 레오의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였다.
- 17 ㉠은 레오가 간절히 갖고 싶던 텔을 갖게 해 달라고 마법사에게 부탁하는 말이므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표정과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어울린다.
- 18 서울이는 자전거가 자신의 앞으로 빠르게 온 것 때문에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으므로, 속상한 표정과 화가 난 목소리가 어울린다.
- 19 신기한 꽃이 피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관심을 보이며 둘러보는 몸짓, 큰 목소리 등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0 ㉠ ‘부엌 안’은 [부어간]으로 발음해야 한다. ㉡ ‘무릎을’은 [무르플]으로 발음해야 한다.

2. 분명하고 유창하게

핵심 확인 문제

28쪽

- 1 × 2 누가, 무엇이
3 (1) ○ (3) ○ 4 ×
5 실감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29쪽

- 1 예 고마운 2 ③
3 (1)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4 서연

- 1 정우는 사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하였다.
2 방송 진행자가 문장의 짜임과 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알맞게 띄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우가 쓴 내용과 다르게 방송이 되었다.
3 (1)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4 글자의 모양을 똑바로 쓰는 것은 글을 읽고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니다.

소단원 1 기본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30쪽

- 1 공원, 꽃밭
2 (1) 오늘은 / 일요일입니다. (2) 날씨가 / 맑습니다. (3) 나비들이 / 날아다닙니다.
3 (1) ② (2) ① (3) ① (4) ② 4 (2) ×

- 1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다가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해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2 ‘누가/무엇이+어찌하다/어떠하다/무엇이다’와 같은 짜임에 알맞게 구분한다.
3 (1) ‘파랗습니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한다. (2) ‘말씀합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3) ‘끄덕입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4) ‘행복합니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한다.

- 4 (2) ‘바다가 푸르다.’에서 ‘푸르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31쪽

- 1 (1) 햇볕 (2) 꼬덕 (3) 날씨
2 (1) 공원 (2) 빙그레 (3) 행복
3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가족과 공원에 놀러 갔다.

소단원 1

통합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문장을 바르게 읽고 쓰기

32~35쪽

- 1 ① 2 ①
3 (1) 단오는 / 음력 5월 5일입니다. (2) 조상들은 / 더위를 이겨 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4 ③, ⑤ 5 ①, ⑤ 6 지혜
7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 빨갛습니다.
8 (1) ③ (2) ① (3) ②
9 (1) ② (2) ① (3) ③ 10 (1) ○
11 (1) 연을 날립니다. (2) 빨갛습니다.
12 (1) ② (2) ① 13 ㉠
14 (1) 마 (2) 예 여자들이 널뛰기를 합니다. / 널빤지 가운데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뛩니다.

- 1 단오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 5월 5일이다.
2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 내기 위해 단옷날에 부채를 주고받았다고 하였다.
3 (1) ‘단오는’은 ‘무엇이’에, ‘음력 5월 5일입니다.’는 ‘무엇이다’에 해당한다. (2) ‘조상들은’은 ‘누가’에, ‘더위를 이겨 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4 글 다에서 단옷날에 먹는 음식으로 수리취떡과 앵두 화채를 소개하였다.
5 단옷날에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고,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다고 하였다.



- 6 단옷날 풍습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 7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은 ‘무엇이’에, ‘빨갛습니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한다.
- 8 ①은 ‘기운’, ②는 ‘초여름’, ③은 ‘명절’의 뜻이다.
- 9 ㉠는 혼례식, ㉡는 줄타기, ㉢는 연날리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10 (2)와 (3)은 ‘누가+어찌하다’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11 (1) ‘연을 날립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2) ‘빨갛습니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한다.
- 12 ‘누가/무엇이’와 ‘어떠하다/어찌하다/무엇이다’에 맞게 선으로 잇는다.
- 13 ‘넌뎀지 가운데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와 같이 ‘누가+어찌하다’의 짜임으로 쓰거나, ‘넌뎀지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의 치마가 빨갛습니다.’와 같이 ‘무엇이+어떠하다’의 짜임으로 써야 한다.
- 14 ‘누가/무엇이’+‘어떠하다/어찌하다/무엇이다’와 같이 문장의 짜임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한다.

는 것은 진지하게 발표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 3 차례차례 발표하면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 4 ㉠은 문장의 짜임에 따라 ‘누가’ 다음에서 조금 띄어 읽었다.

재점 기준 ‘누가’, ‘우리는’ 다음에 띄어 썼다고 하면 정답으로 한다.

- 5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들어야 한다.
- 6 문단 ㉠에서 ‘발표 예절을 잘 지켜야 하고, 서로 배려하며 말하는 친구와 듣는 친구들 모두가 만족하는 발표를 하자’고 하였다.
- 7 (1) ㉠의 ‘생각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살피다’이다. (2) ㉡의 ‘궁금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알고 싶다’이다. (3) ㉢의 ‘질문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물어보다’이다.
- 8 문장 부호 뒤에서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는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36쪽

- 1 (1) 모내기 (2) 음력 (3) 창포
- 2 (1) 피로 (2) 풍습 (2) 기운
- 3 예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내기를 하기 전에 마을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39쪽

- 1 (1) 차례 (2) 진지 (3) 예절
- 2 (1) 존중하는 (2) 진지하게 (3) 만족하는
- 3 예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진지하게 결정을 내렸다.

소단원 2

통합 글의 내용을 파악하며 소리 내어 읽기

37~38쪽

- 1 ① 2 (1) ○ (3) ○ 3 ②
- 4 예 ‘누가’ 다음에서 조금 띄어 읽었다.
- 5 ③, ④ 6 예절, 배려
- 7 (1) 살피다 (2) 알고 싶다 (3) 물어보다
- 8 길게

- 1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 2 (2)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표정과 몸짓으로 말하

소단원 2

통합 이야기를 실감 나게 읽기

40~43쪽

- 1 건강 2 ⑤ 3 치즈
- 4 ③ 5 가지 6 ④
- 7 (1) ① (2) ② (3) ④ (4) ③
- 8 ㉠, ㉡ 9 (3) ○
- 10 (1) ② (2) ① 11 ①, ②
- 12 김치 13 유나 14 ②
- 15 (1) 예 딸기! (2) 예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이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 1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하면서 동네에 사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 3 “치즈!”라고 외치면서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었다.
- 4 할아버지께서 여행은 떠나기 전 설레는 기분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에 어제부터 세계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한 것이다.
- 5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에즈!”라고 하는데, 중국 말로 ‘가지’라는 뜻이다.
- 6 “위스띠띠!”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위스띠띠!”라고 한다고 하였다.
- 7 (1) ㉠은 꾸며 주는 말인 ‘가장’을 강조하여 읽어야 실감 난다. (2) ㉡은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읽어야 한다. (3) ㉢은 사진을 찍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읽어야 실감 난다. (4) ㉣은 물음표의 역할을 생각하며 물어볼 때처럼 읽어야 실감 난다.
- 8 ㉠ 숙모가 주인공 가족의 집에 온 것이다. ㉢ 하와이에 서 유명한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9 ‘샤카’는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의미이다.
- 10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사람이 즐겨 먹는 생선의 이름인 “무이꾸!”, 일본에서는 일본 말로 숫자 2라는 뜻의 “니이!”를 외친다.
- 11 ‘니이’는 일본 말로 숫자 2를 의미하며, 발음할 때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된다.
- 12 여행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세계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두 모여 “김치!”라고 외치면서 사진을 찍었다.
- 13 목소리와 말투에 변화를 주면서 읽어야 장면이 실감나게 느껴진다.
- 14 카프카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어서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친다고 하였다.
- 15 사진을 찍을 때 외치고 싶은 말을 생각하여, 그 까닭과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사진을 찍을 때 외치는 자신만의 말을 만들어 쓰고, 그렇게 만든 까닭을 적절히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44쪽

- 1 (1) 의상 (2) 백야 (3) 기념
- 2 (1) 든든한 (2) 설레어 (3) 느긋하게
- 3 예 든든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 볼 생각에 설렌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45쪽

- 1 ⑤
 - 2 (1) 고양이가 (2) 귀엽다. (3) 내 친구는 (4) 그림을 그린다. (5)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6) 내 동생이다.
 - 3 (1) 안 (2) 알아야
 - 4 (1) ③ (2) ④ (3) ① (4) ②
 - 5 노르스레하다
- 1 잘 익은 앵두(무엇)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 문장의 짜임에 알맞다. 따라서 ‘잘 익은 앵두는 맛 있습니다.’와 같이 써야 한다.
 - 2 ‘고양이가’는 ‘무엇이’, ‘귀엽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한다. ‘내 친구는’은 ‘누가’, ‘그림을 그린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가’, ‘내 동생이다.’는 ‘무엇이다’에 해당한다.
 - 3 (1) ‘안 됩니다.’라고 써야 한다. (2) ‘알아야 합니다.’라고 써야 한다. 참고로, ‘않다’는 ‘아니하다’를 줄여서 쓴 표현이다.
 - 4 (1) ‘노르스레하다’는 ‘조금 노르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노르다’는 ‘달걀노른자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라는 뜻이다. (2) ‘거무스레하다’는 ‘빛깔이 조금 검은 듯하다.’라는 뜻이다. (3) ‘불그스레하다’는 ‘조금 붉다.’라는 뜻이다. (4) ‘푸르스레하다’는 ‘조금 푸르다.’라는 뜻이다.
 - 5 ‘노르스름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노르스레하다’이다.

단원 평가

46~48쪽

- 1 ㉓ 2 공원
3 (1) ㉓, ㉔ (2) ㉒, ㉓ (3) ㉑
4 ㉒ 5 윤이 6 ㉓
7 (1) 조상들은
(2) 더위를 이겨 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8 음식 9 ㉒
10 예 아이들이 연을 날립니다.
11 ㉒, ㉓ 12 ㉓
13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4 (1) ㉒ (2) ㉑ (3) ㉓
15 (1) 걱정 (2) 느긋한 16 동주
17 ㉒
18 예 할아버지처럼 나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 보고 싶어졌어.
19 (3) × 20 안

- 1 글자를 하나하나 끊어 읽으면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용과 짜임에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한다.
2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고 하였다.
3 (1) ㉓, ㉔은 '누가/무엇이+어찌하다'의 짜임이다.
(2) ㉒, ㉓은 '누가/무엇이+어떠하다'의 짜임이다.
(3) ㉑은 '누가/무엇이+무엇이다'의 짜임이다.
4 ㉑ 맑다 - 어떠하다, ㉓ 푸르다 - 어떠하다, 일어나다 - 어찌하다, ㉒ 따뜻하다 - 어떠하다, 웃다 - 어찌하다, ㉓ 먹다 - 어찌하다
5 '푸르다'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다.
6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7 '조상들은'은 '누가'에, '더위를 이겨 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8 이 글은 단옷날에 먹는 음식인 수리취떡과 앵두화채를 소개하였다.
9 ㉒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이고,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빨갛

습니다.'이다.

- 10 제시된 그림의 내용을 자유롭게 문장으로 표현해서 써 본다.

채점 기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1 글쓴이는 진지한 태도로 발표하고,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12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문장의 짜임에 따라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14 (1)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에즈!"라고 한다.
(2)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샤카!"라고 한다.
(3)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이꾸!"라고 한다.
15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라고 하였다.
16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는 뜻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다네 집이에요.'에서 꾸며 주는 말인 '가장'은 강조하듯이 읽어야 한다.
17 할아버지는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라고 하였다.
18 할아버지의 말과 생각을 살펴보고,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본다.
채점 기준 할아버지의 말과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19 (3)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넣어 '잘 익은 앵두는 붉습니다.'와 같이 표현해야 어울린다.
20 '안'을 넣어 '안 됩니다.'와 같이 써야 한다.

진도
교재

3.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핵심 확인 문제

50쪽

- 1 문단 2 중심 3 ×
4 경험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51쪽

- 1 흥부전 2 ㉔ 3 생명
4 ㉔ 5 ㉔
6 예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다.

- 『흥부전』을 읽고 쓴 글이다.
- 글쓴이는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 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 글쓴이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㉔ 부분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았다.
- 짜임새 있게 글을 고쳐 썼기 때문에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느껴진다.
- 짜임새 있게 연결된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짜임새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소단원 1

기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 쓰는 방법 알기

52쪽

- 1 (1) ○ (2) △ (3) ○ (4) △ 2 ㉔
3 중심 생각

- 문단 ㉔의 첫 번째 문장과 문단 ㉔의 첫 번째 문장이 각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이며, 나머지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다.
- 플라스틱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두

얼굴이 있다고 한 것이다.

- 한 문단에는 보통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간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53쪽

- 1 (1) 온도 (2) 인공 (3) 녹
2 (1) 오염 (2) 발명 (3) 해양
3 예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변하면 해양 생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소단원 1

통합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 쓰기

54쪽

- 1 ㉔ 2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㉔ 4 (1) 교실 (2) 강당

- 우리 학교에 다양한 장소가 있다는 중심 문장이 나온 후, 각 장소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나온다.
- 체육 시간에 하는 피구가 좋다는 내용은 우리 학교에 다양한 장소가 있다는 이 글의 중심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써야 한다. 뒷받침 문장을 쓸 때에는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이 글은 우리 학교의 장소를 '교실 - 도서관 - 강당'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55쪽

- 1 (1) 행사 (2) 강당 (3) 피구
2 (1) 장소 (2) 다양한 (3) 행사
3 예 강당의 무대는 높고 넓어서 뒷자석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볼 수 있었다.

19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쓴다.

채점 기준 재미를 느꼈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쓰고, 그 까닭을 적절히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62쪽

- 1 (1) 멋쟁이 (2) 분실물 (3) 휘둥그레지다
2 (1) 금세 (2) 수익금 (3) 현수막
3 예 학교 입구에 바자회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63쪽

- 1 ③ 2 들어
3 예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4 ④ 5 노트가
6 (1) [이팍] (2) [구과]
7 (1) 맨날 (2) 나래 (3) 봉숭아

- 1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2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한 칸을 들여 쓴다.
3 문단을 짜임새 있게 써야 읽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채점 기준 읽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받침 ‘ㅎ’ 뒤에 ‘ㄱ’이 오면 [ㄱ]으로 발음한다.
5 받침 ‘ㅎ’ 뒤에 ‘ㄷ’이 오면 [ㅌ]으로 발음한다.
6 받침 ‘ㅂ’과 ‘ㄱ’ 뒤에 ‘ㅎ’이 오면 각각 [ㅍ], [ㅋ]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7 많은 국민이 공통으로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만날 - 맨날’, ‘날개 - 나래’, ‘봉선화 - 봉숭아’와 같이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여러 낱말이 모두 표준어인 경우도 있다.

단원 평가

64~66쪽

- 1 ④ 2 가
3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4 ④ 5 300년에서 500년
6 ②
7 예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 9 (3) ○ 10 ①
11 예 학생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실도 있습니다.
12 ① 13 아빠 14 ②
15 (2) ○ 16 ⑤
17 예 엄마와 바자회에 가서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기부한 일이 있다.
18 (요술) 선글라스 19 ③
20 (1) ㉠ (2) ㉡

- 1 글쓴이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2 글 가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았다.
3 책에서 감동을 느낀 부분 다음에는 감동을 느낀 까닭이 나와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4 플라스틱이 오랜 시간 썩지 않아 땅이 오염되는 것은 플라스틱의 나쁜 점이다.
5 플라스틱은 썩는 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 땅에 묻혔을 때 땅이 오염된다고 하였다.
6 ㉠과 ㉡이 중심 문장으로,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다.
7 서로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문단으로 구분하면 읽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채점 기준 문단의 개념을 알고, 글을 쓸 때 문단으로 구분하여 쓰면 좋은 점을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중심 문장이 항상 문단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며, 문단 중간에 나오거나 이 문단처럼 끝부분에 나올 수도 있다.

- 3 **다**에서 준우는 우리 고장 유적지 탐방 계획을 ‘어디로, 누구와, 언제’로 나누어 썼다.
- 4 준우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간단히 정리했으므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모두 쓴 은결이의 방법은 준우가 기록한 방법과 다르다.

소단원 1

기본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74~75쪽

- 1 배 밑의 구멍 2 수액 3 ⑤
4 (1) **가** (2) **다** (3) **나** 5 (1) ×
6 (3) ○ 7 ①, ③
8 버스, 질서, 안전띠 매기

- 1 두 번째 문단에서 매미는 배 밑의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다고 하였다.
- 2 매미는 많은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그것의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는다고 하였다.
- 3 매미가 수액을 내뿜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 수 있으므로 천적에게서 재빨리 도망갈 수 있다.
- 4 **가**에서 ‘신맛’, ‘친척’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나**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지 않고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다 썼다. **다**는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했다.
- 5 낱말로만 정리한 것은 **가**이다. **다**는 제목을 쓰고, ‘1, 2, 3’과 같은 숫자를 사용해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과 별표를 했다.
- 6 버스 탑승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버스를 탔던 경험을 떠올려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7 ②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④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가 있으므로 질서를 지켜서 오르내려야 한다. ⑤ 화장실 따위의 급한 불일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으라고 하였다.
- 8 설명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고, 버스에 타고 내릴 때와 버스에 타고 있을 때로 나누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76쪽

- 1 (1) 좌석 (2) 수액 (3) 안전
2 (1) 천적 (2) 밀치면 (3) 탑승
3 **예** 열차에 탑승하고 창가 좌석에 앉아 밖을 구경했다.

소단원 1

통합 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77~78쪽

- 1 ④ 2 ②, ④ 3 장보고
4 (1) ① (2) ③ (3) ② 5 5월 31일
6 (3) ○ 7 ④ 8 (1) ×

- 1 여러 기념일이 있는 5월에 바다를 위한 기념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 2 문단 ②의 첫 문장에 바다의 날이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고, 바다 관련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 3 바다의 날은 통일 신라 시대의 장보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4 문장에 쓰인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보고, 정확한 뜻을 찾아본다.
- 5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1일이고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짜를 바다의 날로 정했다.
- 6 바다의 날은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 바다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 7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 점검할 점으로 알맞지 않다.
- 8 영상에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화면의 그림이나 자막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79쪽

- 1 (1) 해양 (2) 참혹한 (3) 아늑한
2 (1) 설치하여 (2) 제정한 (3) 기념일
3 **예** 겨울밤에는 아늑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소단원 2

기본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80~81쪽

1 된장 2 ⑤

3 (1) ㉠
(2) ㉡, ㉢, ㉣, ㉤

4 (3) ㉠ 5 ①, ③

6 ㉡ → ㉢ → ㉣ → ㉤

7 메주, 콩, 소금물, 된장

8 예 메주를 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간장, 고추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다.

- 1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 2 문단 ②에서 메주를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생긴다고 하였다.
- 3 중심 문장이란 각 문단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이란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다.
- 4 메주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지게 된다고 하였다.
- 5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히는데, 이때 붉은 고추와 숯은 잡균을 없애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6 가장 먼저 짙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빗어 메주를 만들어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 그런 뒤 메주를 빻짚으로 묶어 바람에 말리고 항아리에서 메주를 삭힌다. 마지막으로 삭힌 메주로 된장을 만든다.
- 7 된장을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이 나타나도록 간추린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글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본다.
- 8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된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 등을 쓰도록 한다.

채점 기준 된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82쪽

- 1 (1) 제거 (2) 손질 (3) 꾸덕꾸덕
- 2 (1) 삭혀서 (2) 잡균 (3) 장독
- 3 예 초콜릿을 꾸덕꾸덕하게 녹여서 과자에 찍어 먹었더니 훨씬 맛있었다.

진도
교재

소단원 2

통합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 파악하기

83~87쪽

1 (2) ㉠ 2 ①, ③

3 (술이) 감자, 할머니 집 4 ⑤

5 할머니네 감자밭 6 단우, 윤재

7 ③ 8 (1) ㉠ 9 ⑤

10 ③ 11 (2) ㉠

12 예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13 (3) ㉠ 14 ②, ⑤ 15 두더지

16 예 감자밭에서 술이가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떠오른다.

17 ④ 18 (1) ② (2) ③ (3) ①

19 5, 2, 3, 4, 1 20 민우

- 1 술이 할머니 집은 마루에 서면 산만 보이는 시골이다.
- 2 술이는 할머니는 좋지만 시골은 싫다고 하였다. 또 할머니 집에 가면 같이 놀 동무가 없어 심심하다고 하였다.
- 3 할머니는 술이에게 ‘술이 감자’를 캐러 내일 할머니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하셨다.
- 4 술이는 할머니 집이 있는 시골이 싫지만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감자가 생각나서 이번에는 얼른 가겠다고 했다.
- 5 한 달 전 술이에게 ‘술이 감자’가 생긴 일이 일어난 장소는 ‘할머니네 감자밭’이다.
- 6 술이는 하얀색 감자꽃 사이에서 핀 자줏빛 감자꽃을 보고 신기해하였고, 자줏빛 꽃이 핀 감자를 ‘술이 감자’라고 정하였다.
- 7 술이가 자주 꽃 핀 감자를 가리키며 ‘저거 내 감자 할 거야.’라고 말했고 할머니도 ‘자주 꽃 핀 감자, 이제 술이 까다.’라고 말씀하셨다.

- 8 '절레절레'는 '머리를 좌우로 자꾸 흔드는 모양.'을 뜻한다. (2)는 '꾸벅', (3)은 '까딱까딱'의 뜻이다.
- 9 솔이와 엄마, 아빠, 할머니는 감자밭으로 감자를 캐러 갔다. 할아버지는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 10 감자밭의 감자꽃이 다 저 버려서 할머니께서도 자줏빛 꽃이 핀 솔이 감자를 찾을 수 없었다.
- 11 할머니, 아빠, 엄마 뒤에 감자가 쌓였지만 그중에 표나는 솔이 감자가 없었다. 솔이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
- 12 솔이는 자줏빛 꽃이 핀 자신의 감자를 캐러 설레는 마음으로 감자밭에 왔다. 하지만 꽃이 저서 감자를 찾지 못하고 할머니, 아빠, 엄마가 캔 감자 중에도 자신의 감자가 없었다. 화가 난 솔이는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

채점 기준 '솔이가 화가 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 13 할머니는 감자를 혼자 가꾼 것이 아니고 가랑비, 이슬, 피약별도 함께 가꾸었다고 하셨다. 가랑비, 이슬, 피약별은 자연을 의미한다.
- 14 감자를 함부로 집어던진 솔이가 감자를 키운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감자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 15 땅속에 있는 두더지가 나오면서 할머니 뒤로 흙이 포슬포슬 올라왔다.
- 16 문단 ④에서 중요한 사건은 감자밭에 두더지가 나타난 것이다. 감자밭을 두더지가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니는 장면, 솔이가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가는 장면 등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써 본다.

채점 기준 글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바탕으로 적절한 장면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7 솔이는 두더지를 쫓아 감자밭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니다가 자줏빛 감자 하나가 두더지 굴 옆으로 삐죽이 나온 걸 보았다.
- 18 '주렁주렁, 포슬포슬, 꼬불꼬불'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19 '솔이 감자'가 생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 감자를 캐러 할머니 집에 간 뒤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사건을 차례대로 정리해 본다.
- 20 글의 앞 부분에서 솔이는 시골을 싫어했으므로 민우의 말은 잘못되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88쪽

- 1 (1) 딸리다 (2) 캐다 (3) 파헤치다
2 (1) 피약별 (2) 수북이 (3) 가랑비
3 예 피약별 속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가랑비가 내리자 잠시 쉬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89쪽

- 1 ㉠, ㉡, ㉢ 2 (2) × 3 (1) ○
4 (1) 나 물 좀 줘. (2) 용돈이 만 원이 있다.
5 명절 6 (1) 떡국 (2) 추석 (3) 제기차기

- 1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려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글을 쓴 장소를 확인하는 것은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인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3 그림에서 아이가 밤이 열리는 밤나무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밤나무'로 붙여 써야 한다. (2)는 캄캄한 밤에 나무를 심자는 뜻이 된다.
- 4 (1) 목마른 아이가 물을 달라는 그림이므로 '나'와 '물'을 띄어 써야 한다. 붙여 쓰면 '나물'을 달라는 뜻이 된다. (2) 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므로 용돈 '만 원'이 되도록 '이'를 '용돈'과 붙여 써야 한다.
- 5 '명절'을 주제로 하여 음식, 종류, 놀이 세 가지로 연결되는 생각그물이다.
- 6 '추석'은 명절의 종류, '제기차기'는 명절놀이, '떡국'은 명절 음식에 속하는 낱말이다.

단원 평가

90~92쪽

- 1 (3) × 2 ④ 3 (2) ○
 4 ④, ⑤ 5 예 버스를 탄 뒤의 안전 사항
 6 예 1. 안전띠 매기 / 2. 함부로 이동하지 않기 /
 3. 급한 불일이 있을 때 선생님 찾기
 7 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1일이
 기 때문이다.
 8 ①, ③ 9 (1) ○
 10 예 소리뿐만 아니라 화면의 그림과 자막을 집
 중해서 본다.
 11 ③ 12 ㉠ 13 항
 14 ②, ③
 15 자줏빛 꽃이 핀 감자(자주 꽃 핀 감자)
 16 (3) ○
 17 (1) 예 감자꽃이 다 저서 자주 꽃 핀 감자를 찾
 지 못했다. (2) 예 속상하고 실망스럽다.
 18 (1) 두더지 (2) 자주감자 19 ③, ④
 20 용돈이 만 원이 있다.

- 1 (3)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2 매미는 많은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먹은 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는다.
 3 (1)은 글의 설명과 다른 내용을 썼으며 낱말로만 정리
 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4 기호나 숫자를 사용하면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5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지켜야 할 안전 사항을 설명하였다.
 6 지켜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말했으므로 숫자 1, 2, 3
 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채점 기준 '안전띠 매기', '함부로 이동하지 않기', '급한
 불일이 있을 때 선생님 찾기'와 같이 글의 중요한 내용
 을 잘 정리하여 쓰면 정답으로 한다.

- 7 장보고가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1일이다.
 8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9 바다의 쓸모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적절하므로 (1)이 '가치'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2)
 는 '무역'의 뜻이다.

- 10 영상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그림과 자막으로 보여 주
 기도 하므로 화면의 그림과 자막을 집중해서 잘 봐야
 한다.

채점 기준 '화면의 그림과 자막을 집중하여 본다.', '영
 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등 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적절하
 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1 짙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은 것이 메주이
 다.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드는 것이 된장 만
 들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다.
 12 ㉠, ㉡은 중심 문장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뒷반
 침 문장이며 ㉡이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
 이다.
 13 된장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된장'과, 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콩', '메주'는 간추린
 내용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낱말이다.
 14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인
 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5 술이는 자줏빛 꽃이 핀 감자를 자신의 감자로 하겠다
 고 말한 것이다.
 16 자신의 감자를 빨리 캐고 싶었던 술이는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감자를 캐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17 감자꽃이 다 저서 자주 꽃 핀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
 한 술이는 속상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1)에 술이가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한 일을
 쓰고, (2)에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8 감자밭에 두더지가 나타났고, 술이는 두더지를 쫓아
 가다가 두더지 굴 옆에서 자주감자를 찾았다.
 19 두더지에게 자신의 자주감자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술이의 모습에서 술이가 자주감자를 찾게 해 준 두더
 지에게 고마워하고, 두더지를 친구처럼 여긴다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다.
 20 그림에는 만 원 지폐 한 장이 있으므로 '이'를 '용돈'에
 붙여 써야 한다.

진도
 교재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핵심 확인 문제

94쪽

- 1 성격 2 (1) ○ (3) ○ 3 ○
4 올림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95쪽

- 1 ⑤ 2 ③, ⑤
3 (1) 예 행복한 왕자 (2) 예 제비
(3) 예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행복한 왕자를 떠나지 않은 까닭
4 예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행복한 왕자를 떠나지 않고 지켜 준 제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 1 승현이는 장금이에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고 싶다고 하였다.
2 장금이를 응원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 닮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3 평소에 읽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 기억에 남는 인물을 생각해 본다. 그다음 그 인물에게 궁금한 점을 떠올려 본다.
4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 속 인물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써 본다.

채점 기준 이야기 속 인물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소단원 1

기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

96~97쪽

- 1 ①, ③ 2 ⑤ 3 ⑤
4 ② 5 ④
6 (1) 작은 돌멩이 (2) 물병
7 (1) 포기가 빠르다. (2) 끈기 있다.

- 1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바짝 말랐다. 까망이와 까미는 먹을 물이 없어 목이 몹시 말랐다는 글

의 내용에서 까망이와 까미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 2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한 것으로 보아 까망이는 적극적인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까망이와 까미의 부리가 짧아 병 안에 든 물에 닿지 않아 물을 마실 수 없었다.
4 ‘성질이 급하다’는 까미의 성격을 글에 직접 나타낸 말로 성격이 참을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5 까망이는 까미와 달리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6 까망이는 병 안에 든 물이 위로 차올라 수 있도록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다.
7 할 만큼 했다고 말하며 물 마실 방법을 더는 찾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까미는 포기가 빠른 성격이고, 까미와 달리 포기하지 않고 좋은 방법을 곰곰이 생각한 까망이는 끈기 있는 성격이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98쪽

- 1 (1) 실컷 (2) 곰곰이 (3) 입구
2 (1) 곰곰이 (2) 무작정 (3) 실컷
3 예 무작정 길을 걷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소단원 1

통합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99~106쪽

- 1 까먹는 2 (1) ○ (3) ○ 3 조금
4 ③ 5 (3) ○ 6 ①, ③
7 (1) ② (2) ① 8 도토리 묻은 곳
9 ③ 10 ① 11 미소
12 ④, ⑤
13 예 줄무늬가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했지만 까먹마을 다람쥐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14 튼튼한 집 짓는 법 15 ①, ②
16 (2) ○ 17 안 까먹는 방법
18 ③
19 물구나무를 백 번 섰다고 거짓말을 해서
20 ①, ② 21 ① → ② → ③
22 (3) ○ 23 까먹마을 24 ①, ⑤



25 (3) ×

26 (1) 예 다정하다. (2) 예 울먹이는 쌍둥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쌍둥이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
여 주었기 때문이다.

27 5, 1, 2, 4, 3 28 (1) ○ (2) ○

29 예 나도 줄넘기를 못했는데 매일 연습해서 잘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 1 까먹마을에 사는 다람쥐들은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고, 도토리를 여기저기 묻어 두고 묻은 곳을
잘 까먹는다.
- 2 줄무늬는 도토리를 어디 묻었는지 까먹어서 찾지 못
하는 도토리가 아까웠다. 또 자기가 묻은 많은 도토
리를 다 찾아 먹지 못해 억울했다.
- 3 자기가 도토리를 묻은 만큼 찾아 먹는 것이 공평하도
고 생각하였다.
- 4 자기가 묻은 도토리 만큼 찾아 먹으려면 도토리 묻은
곳을 까먹지 않아야 하므로 줄무늬는 ‘안 까먹는 방
법’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하였다.
- 5 잘 까먹는 다람쥐들과는 달리 약초 할머니는 약초에
대해 안 까먹기 때문에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찾아갔다.
- 6 약초 할머니는 타고난 약초 천재여서 약초에 대해서
만 안 까먹고, 도토리 묻은 곳은 다른 다람쥐들처럼
기억하지 못한다.
- 7 ㉠과 ㉡은 소리와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다. ‘이가 튼튼해서’라는 말에서 ㉠이 ㉡의 뜻임을,
‘약초에 대해선’이라는 말에서 ㉡이 ㉠의 뜻임을 알
수 있다.
- 8 약초에 대한 것은 까먹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초 할머니 같은 천재 다람쥐가 있는 것이다. 도토리
묻은 곳을 안 까먹는 천재 다람쥐가 없는 것은 도토리
묻은 곳은 까먹어도 괜찮아서이다.
- 9 물구나무서서 ‘쥐람다’를 백 번 말한 뒤에 어제 도토
리 묻은 곳을 모두 기억했다. ㉠, ㉡, ㉣, ㉤는 안 까
먹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던 방법
이다.
- 10 도토리 묻은 곳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나서 폴짝폴짝
뛰고 소리를 지른 것이므로 ‘안 까먹는 방법’을 드디

어 찾은 것이 기뻐서 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 11 줄무늬는 잘난 척하며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다.
약초 할머니의 말을 곱씹고 여러 번 생각한 뒤에 자신
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 12 ㉠과 ㉡는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고, ㉢은 줄무늬
의 생각으로, 도토리 묻은 곳을 안 까먹었을 때 좋은
점이다.
 - 13 줄무늬가 도토리 묻은 곳을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 주
려고 했지만 다른 다람쥐들은 까먹어야 좋다고 생각
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일로 속이 상한 줄무
늬는 마을에서 떨어져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 채점 기준** 까먹마을 다람쥐들이 안 까먹는 방법에 대
해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4 먼 길을 떠나 튼튼마을에서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운
줄무늬는 마을로 돌아와 산꼭대기에 집을 지었다.
 - 15 줄무늬는 산꼭대기에 튼튼한 집을 짓고, 좋은 도토리
를 집 한 구석에 잔뜩 쌓아 놓고 살았다. 봄에 먹을
것은 자기 집 마당에 직접 묻었다가 찾아 먹었다.
 - 16 줄무늬는 안 까먹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지어 좋은 도토리를 모으고, 마당에 묻은 도토리를
까먹지 않고 봄에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 17 줄무늬는 쌍둥이도 안 까먹는 다람쥐로 살게 하려고
쌍둥이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쳤다.
 - 18 줄무늬가 장난을 치는 둘째와 키득거리는 첫째를 혼
내며 철저히 훈련시킨 것에서 줄무늬의 성격이 엄
격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9 둘째는 물구나무를 아흔다섯 번만 서 놓고 백 번 했다
고 줄무늬를 속였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쌍둥이를 훈
련시키는 줄무늬는 속지 않고 둘째를 혼냈다.
 - 20 이른 봄날 지진이 나서 줄무늬의 집이 무너졌다. 그
리고 줄무늬는 기둥에 깔렸다.
 - 21 쌍둥이가 무력무력 자라 잘 까먹지 않게 되어 행복했
다. → 이른 봄날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기둥에
깔려 쌍둥이를 구하고 싶지만 꼼짝할 수 없어 애가 탔
다. → 아무도 자기를 구하려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
고 절망스러웠다.
 - 22 살려 달라고 외치던 줄무늬는 자기 집이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과, 아무도 자기를 구하러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23 까먹마을 다람쥐들 여럿이 산꼭대기까지 줄무늬네를 구하러 왔다.

24 지진이 났지만 가벼운 풀로 지은 집에 사는 다람쥐와 그냥 땅속에 사는 다람쥐는 무거운 집 더미에 깔려 다칠 일이 없었다.

25 다람쥐들은 뒷다리를 다친 줄무늬를 치료해 주고, 울먹이는 쌍둥이를 안심시키며 달래 주었다.

26 약초 할머니는 울먹이는 쌍둥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쌍둥이를 안심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다정하고 자상한 할머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1)에는 '다정하다, 자상하다, 지혜롭다'라는 말 또는 비슷한 느낌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2)에는 쌍둥이를 달래 주고 안심시켜 주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27 전체 이야기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줄무늬가 아기 다람쥐였을 때부터 엄마가 되고 지진이 나기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본다.

28 지진이라는 큰 재난이 터진 뒤 까먹마을 다람쥐들에게 도움을 받은 줄무늬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깨닫고, 예전의 자기 모습과 생각을 반성했을 것이다.

29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등 줄무늬의 경험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이야기 속에 드러난 줄무늬의 경험과 비슷한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소단원 1

통합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그림책 읽기

108~109쪽

- 1 잭슨, 편지 2 ㉠ 3 ㉡
4 (1) ○ 5 (1) ㉠ (2) ㉡ (3) ㉢
6 (1) 말 (2) 행동
7 (1) 예 정직하다. (2) 예 배려심이 많다.

- 1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알 수 있다. ㉠, ㉢은 잭슨이 그레이엄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이고, ㉡, ㉣은 할아버지가 잭슨에게 쓴 편지이다.
- 2 편지 ㉠이 잭슨이 할아버지께 쓴 첫 편지이다. 잭슨은 축구공이 정원에 들어가 버렸는데 장미가 무사하면 좋겠다고 걱정하며 죄송하다고 하였다.
- 3 편지 ㉠을 받고 할아버지가 쓴 답장이 편지 ㉡이다. 할아버지는 잭슨에게 장미 가지치기하는 걸 보여 주겠다고 주말에 오라고 하셨다. 장미를 걱정하는 잭슨에게 장미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안심시키려는 배려심이 담겨 있다.
- 4 잭슨과 할아버지는 편지를 한 번 주고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편지 ㉢, ㉣와 같이 계속 이어져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 5 편지에서 낱말이 쓰인 문장을 보며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 6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7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정직한 성격을,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모습에서는 배려심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07쪽

- 1 (1) 약초 (2) 봉우리 (3) 이르다
2 (1) 천재 (2) 까먹었다 (3) 토닥였다
3 예 할머니가 알려 주신 약초의 이름을 까먹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10쪽

- 1 (1) 생신 (2) 정원 (3) 멀쩡
2 (1) 꽃고 (2) 가지치기하는 (3) 무사히
3 예 아버지와 함께 정원의 나무들을 가지치기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17쪽

- 1 (1) 상황 (2) 마음 (3) 표현 (4) 읽을 사람
 2 예 하늘나라로 간 우리 집 강아지 별이에게 그 리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거야.
 3 (1) 살펴볼게 (2) 살펴볼게
 4 (1) 지킬게요. (2) 나갈게. 5 ③
 6 (1) 꼼꼼하다 (2) 다정하다 (3) 정직하다 (4) 주체적이다

- 1 가장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전 하려는 마음과, 그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한다. 그리고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
 2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게 써 본다.

채점 기준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3 [살펴볼게]로 소리 나지만 '살펴볼게'로 써야 한다.
 4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ㄴㄹ게'의 '게'는 [께]로 소리 나더라도 '게'로 써야 한다.
 5 6개의 낱말 카드에 쓰인 말은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인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6 (1) 무뚝뚝하다: 말, 행동, 표정 등이 상냥하지도 부드럽지도 못하다. (2) 성급하다: 성질이 급하다. (3) 이해심이 많다: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 준다. (4) 끈기 있다: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딘다.

단원 평가

118~120쪽

- 1 (3) ×
 2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아서이다.
 3 ① 4 (3) ○ 5 돌멩이
 6 까미 7 ④, ⑤ 8 ④
 9 (3) ○ 10 ①
 11 예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성격이다.
 12 "꼭 백 번을 채워야 해." 줄무늬는 아침마다 말했어. 13 ② 14 정직하다

- 15 예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 했기 때문이다.

16 ⑤

- 17 예 받는 사람 뒤에 '께'를 붙인다. / '요'로 문장을 끝맺는다. / 쓴 사람 뒤에 '올림'을 붙인다.

18 ⑤ 19 감사합니다 20 할게요

- 1 이야기 속 인물에게 마음을 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 속 '인물'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2 까망이와 까미는 부리가 짧아 물병 안에 든 물에 닿지 않아 물을 마실 수 없었다.
 3 까미는 물병을 밀었지만 물병이 꿈쩍도 하지 않자 할 만큼 했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4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말과, 작은 돌멩이들을 넣는 행동으로 보아 까망이는 물을 마실 방법을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5 까망이는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돌멩이를 물병 속에 집어넣었다.
 6 '성질이 급한'이라는 말과, 물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간 행동을 통해 까미가 성급하고 포기가 빠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7 글에 직접 제시된 성격을 나타내는 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8 까먹마을 다람쥐들은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까먹는다.
 9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는 자신이 그만큼 다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0 ㉠은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것을 내어 먹다.', ㉡~㉣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이다.

- 11 줄무늬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등장인물인 줄무늬와 말이나 행동에서 성격을 알맞게 파악하면 정답으로 한다.

- 12 쌍둥이에게 아침마다 꼭 백 번을 채우라고 말한 부분에서 엄격하고 꼼꼼한 줄무늬의 성격을 알 수 있다.
 13 쌍둥이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쥐람다'를 꼭 백 번 채워야 한다고 아침마다 말한 것에서 엄격하고 꼼꼼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4 축구공이 정원으로 들어가 버린 일을 솔직하게 말한 것에서 정직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5 책은 축구공이 할아버지 정원에 들어가 버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였다.

채점 기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16 의견에 대한 까닭은 마음을 전하는 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니며,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17 ‘할아버지께’, ‘책은 올림’에서 받는 사람 뒤에 ‘께’를, 쓴 사람 뒤에 ‘올림’을 붙임을 알 수 있다. ‘심었어요’, ‘옆으로요’, ‘줄 거예요’, ‘키울게요’ 등에서 문장을 ‘요’로 끝맺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받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알맞은 높임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모두 찾으면 정답으로 한다.

18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가장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이나 사람을 떠올린다.

19 이 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이므로 ‘감사합니다’가 알맞다.

20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르게’의 ‘게’는 [께]로 소리 나더라도 ‘게’로 써야 한다.

6. 자신 있게 읽고 써요

핵심 확인 문제

122쪽

1 ○

2 의견

3 비교

4 (3) ×

5 목표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23쪽

1 ①

2 (1) ② (2) ①

3 ⑤

4 ④

5 예 재미있게 본 영화 소개 / 오늘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

6 ②

- 1 다인이와 선우는 모두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진 일을 글로 썼다.
- 2 같은 일을 겪었지만 다인이와 선우의 생각은 다르다. 다인이는 던진 공이 빗나가서 아쉽고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였고, 선우는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다고 하였다.
- 3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다르다.
- 4 있었던 일을 떠올려 글을 쓰려는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떠올리는 것은 알맞지 않다.
- 5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떠올려 써 본다.
- 6 글을 고치는 것은 글을 쓰기 전이 아니라 쓴 뒤에 생각할 일이다.

소단원 1 기본 사실과 의견에 대해 알기

124~125쪽

1 ④

2 주원

3 ②

4 ⑤

5 (1) ㉠, ㉡ (2) ㉢, ㉣

6 (1) ② (2) ①

7 ①

8 (1) 사실 (2) 사실 (3) 의견

9 (1) ② (2) ①

10 ㉢

11 (1) 예 우리 반 교실은 3층에 있다. (2) 예 우리 반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 봉사를 실천한다.

12 승희

- 1 주원이와 지호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홍학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2 주원이는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다는 행동을 이야기하였다.
- 3 지호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홍학의 행동이 어떤지 불편해 보인다고 하였다.
- 4 글쓴이는 홍학이 왜 한쪽 다리를 든 채 서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 5 ㉠, ㉡은 한 일이나 본 일 등 있었던 일이고, ㉢, ㉣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다.
- 6 사실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다.
- 7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닌,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을 찾는다.
- 8 본 것이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한 것은 '사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것은 '의견'이다.
- 9 (1)은 종이를 아껴 쓰자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므로 '의견', (2)는 쓰레기통에 종이가 실제로 버려져 있는 일이므로 '사실'이다.
- 10 ㉠과 ㉡은 현재 있는 일인 '사실'에 해당하고, ㉢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다.
- 11 있는 일이나 있었던 일을 쓰면 '사실', 우리 반에 대한 생각을 쓰면 '의견'이다.

채점 기준 우리 반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2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소단원 1

기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 읽기

126~128쪽

- | | | |
|------|---------------------|------|
| 1 ㉠ | 2 ㉣, ㉤ | 3 생명 |
| 4 사실 | 5 ㉠, ㉡ | 6 먼지 |
| 7 기온 | 8 (1) ㉡ (2) ㉠ | 9 ㉤ |
| 10 ㉤ | 11 (1) 어려웠고 (2) 비쌌기 | |
- 12 예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내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1 보통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쓴다고 하였다.
- 2 소금은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이고,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고,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 준다.
- 3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 사실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설명으로 위의 문장들은 사실에 해당한다.
- 5 소금은 치약, 비누,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눈길에 소금을 뿌리면 길이 얼지 않게 해 준다.
- 6 흙바닥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7 기온(氣溫)은 공기(氣)의 온도(溫)를 뜻하는 말이다.
- 8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 사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면 의견이다.
- 9 글쓴이는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생활 곳곳에 쓰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라고 하였다.
- 10 '보잘것없다'는 '불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라는 뜻이다.
- 11 과거에는 소금이 구하기 어려웠고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소금을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 12 사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통해 글쓴이와 내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사실에는 '정보를 얻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의견에는 '생각을 나눈다/비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29쪽

- 1 (1) 기온 (2) 하찮게 (3) 소화
- 2 (1) 존재 (2) 간 (3) 유지
- 3 예 겨울에는 기온이 낮으니 따뜻한 옷으로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한다.

채점 기준 (1)에는 새 글을 읽고 석빈이의 진심을 느꼈다는 내용, 석빈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2)에는 미안한 마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 안심한다는 내용, 정성을 들여 글을 써서 뿌듯하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 12 쓰기 활동을 되돌아볼 때는 새롭게 안 사실과 느낀 점을 정리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6쪽

- 1 (1) 유독 (2) 조언 (3) 상담
2 (1) 부끄럽다 (2) 변명 (3) 감격
3 예 아빠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냈지만 발표할 때는 여전히 부끄러웠다.

소단원 2

통합 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 쓰기

137~138쪽

- 1 (1) ② (2) ① 2 ⑤ 3 ④
4 ④
5 주인공이 친구들과 씩씩하게 달려가는 모습
6 (1) ○ (3) ○ (4) ○
7 예 어떤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들까?
8 ①, ⑤ 9 ⑤ 10 ①

- 1 민혜는 그림으로, 준영이는 글로 생각을 표현하기로 하였다.
2 민혜는 사람들이 용감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3 준영이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쓰기로 했다.
4 준영이는 책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쓰기로 정했다.
5 민혜가 그리기로 정한 내용은 주인공이 친구들과 씩씩하게 달려가는 모습이다.
6 ‘쓴 내용을 어떻게 고칠까?’는 글쓰기를 계획할 때 미리 떠올릴 질문으로 알맞지 않다.

- 7 로봇의 크기나 능력 등 어떤 점을 글로 쓸지 생각하여 써 본다.

채점 기준 계획에 나오지 않은 로봇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로봇의 어떤 점을 글로 쓸지,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쓸지 생각했다.
9 ⑤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과 거리가 멀다.
10 글을 쓸 때 계획을 잘 세우면 좀 더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39쪽

- 1 ① 2 지호 3 ①
4 너나들이 5 ③ 6 너나들이

- 1 글쓴이의 의견을 모두 맞다고 생각하며 글을 읽기보다 글에 드러난 의견과 내 생각을 비교하며 글을 읽는 것이 알맞다.
2 생각을 표현할 때에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써 본다. 또, 이전에 썼던 글쓰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3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듣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다.
4 ‘너나들이’의 낱말 뜻이다.
5 깨었다가 다시 든 잠을 ‘그루잠’이라고 한다.
6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서로 너나 나니 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는 사이’라는 뜻의 ‘너나들이’가 들어가기에 어울린다.

단원 평가

140~142쪽

- 1 ④ 2 가
3 예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홍학
5 ④ 6 (1) ① (2) ② 7 ③
8 (1) 사실 (2) 의견 9 ②
10 사실 11 (2) ○ (3) ○ 12 ⑤
13 의견



14 예 치약, 비누,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물건에
소금 성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15 ㉠, ㉡ 16 ㉢ 17 세밀하게

18 예 미안한 마음 / 사과하는 마음

19 색연필 20 ㉠

- 1 글 ㉡와 ㉢ 모두 피구 시합에서 진 일을 썼다.
- 2 글 ㉢에서는 비록 졌지만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 3 같은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다르다.

채점 기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한다.

- 4 주원이와 지호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홍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5 주원이는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행동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 6 주원이의 말은 현재 있는 일인 '사실', 지호의 말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인 '의견'에 해당한다.
- 7 종이를 아껴 쓰자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 있으므로 '의견'에 해당한다.
- 8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은 사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은 의견이다.
- 9 ㉡는 봄에 대한 생각이므로 의견이다. ㉠, ㉢은 사실이고 ㉣, ㉤는 의견에 해당한다.
- 10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은 사실이다.
- 11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가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 준다고 하였다.
- 12 소금이 물기를 머금어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흙바닥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 13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난 '의견'이다.
- 14 이 글에 드러난 사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글에 드러난 내용 중 '사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15 협동 로봇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은 ㉠과 ㉡이다.

16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라고 하였다.

17 '세밀하게'는 '자세하고 꼼꼼하게'라는 뜻이다.

18 글 ㉡에서는 '미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 글 ㉢에서는 '정말로 미안해'라고 쓴 것으로 보아 글쓴이가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를 통해 알 수 있다.

20 글 ㉡의 글쓴이는 읽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는 글을 썼다.

서술형 평가

6쪽

- 예 꽃봉오리들이 곧 피어날 듯 말 듯 봉긋봉긋하게 달려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예 '푸하하하'가 있어야 웃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 예 벚꽃나무 가지에 봉긋하게 핀 꽃송이들을 본 기억이 떠오른다.
- (1) 예 다정하고 친절할 목소리
(2) 예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
- 예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하기 어렵다.

- '참았던 웃음꽃을 마구 터뜨려 놓겠다'라는 표현을 통해 꽃이 활짝 피는 것을 '웃음꽃'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터질 듯 말듯 '웃음보파리'는 꽃봉오리들이 곧 피어날 듯 말 듯 봉긋봉긋하게 달려 있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점수
꽃봉오리가 피어날 듯한 모습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웃음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푸하하하'가 있으면 꽃봉오리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시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푸하하하'가 있어야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푸하하하'가 빠졌다는 내용만 쓴 경우	3점

-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시의 장면을 상상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시의 장면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쓴 경우	6점
시의 장면만 쓴 경우	3점

-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은 친구가 같이 숙제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므로 다정하고 친절할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어울리고, ㉡는 친구가 자신의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므로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어울린다.

채점 기준	점수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1)과 (2)에 모두 쓴 경우	6점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1)과 (2) 중 하나만 쓴 경우

3점

-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대화해야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상황에 맞는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대화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알맞게 짐작하여 쓴 경우	6점

평가
교재

수행 평가

7쪽

- (1) 예 빙글빙글, 사뽀사뽀, 폴짝폴짝, 조심조심, 살짝살짝
(2) 예 '폴짝폴짝' 같은 말은 줄을 뛰어넘는 느낌을 살려서 읽는다. / '사뽀사뽀' 같은 말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발을 내디디는 모양을 생각하며 읽는다.
- 예 줄넘기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모두 빠졌다.
- 예 ㉠보다 ㉡를 낭송할 때 줄넘기하는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 ㉠보다 ㉡를 낭송할 때 줄넘기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 줄넘기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고, 감각적 표현에 어울리는 낭송 방법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 감각적 표현'과 '(2) 표현에 어울리는 낭송 방법'을 모두 적절히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히 쓴 경우	5점

- ㉠과 달리 ㉡에서는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채점 기준	점수
'줄넘기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모두 빠졌다.'와 같이 정확히 쓴 경우	10점
'표현이 줄었다.'와 같이 불명확하게 쓴 경우	5점

- ㉠은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시를 낭송할 수 있지만 ㉡는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서 ㉠보다 생생한 느낌이 부족하다.

채점 기준	점수
㉠과 ㉡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쓴 경우	10점
㉠과 ㉡의 비교 없이 하나의 시에만 초점을 맞춰 쓴 경우	5점

2. 분명하고 유창하게

단원 평가 1회

8~9쪽

- 1 ㉠, ㉡ 2 ㉢
 3 ㉣ 맞습니다, 파랗습니다, 시원합니다
 4 ㉡ 5 (2) × 6 ㉠, ㉡
 7 (1) ㉣ 우리는√가끔 친구의 말을√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2) ㉣ 문장의 짜임에 따라 ‘누가’ 다음에 조금 띄어 읽었고, 뒷부분이 길어서 한 번 더 띄어 읽었다.
 8 ㉣ “치즈!” 하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어서
 9 (1) ○ 10 (1) ㉠ (2) ㉣

- 1 ㉣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
 2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호가’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3 이 글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은 ‘맞습니다’, ‘파랗습니다’,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신기하니’이다.
 4 오늘날에 잘 지내지 않는 명절이 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5 ‘우리나라의 날씨는’이 ‘무엇이’에 해당하고, ‘점점 더워집니다.’가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6 ㉢ 재미있고 신나게 발표하라는 내용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다. ㉣ 발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야 한다. ㉤ 발표하는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길이를 생각하여 알맞게 띄어 읽어 보고, 그렇게 띄어 읽은 까닭을 알맞게 써 본다.
채점 기준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길이에 따라 ‘누가’ 다음에 띄어 읽고,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띄어 읽도록 표시하고 까닭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8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된다고 하였다.
 9 (2) ‘나랑 가장 친한 친구’에서 꾸며 주는 말인 ‘가장’은

강조하듯이 읽어야 실감 난다.

- 10 (1)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야 한다. (2) ‘물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써야 한다.

단원 평가 2회

10~11쪽

- 1 (1) ○ 2 (1) 지호는 (2) 행복합니다.
 3 ㉠, ㉢ 4 ㉢ 5 ㉢
 6 발표 예정 7 ㉠ 8 ㉠
 9 ㉣ 남극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다.
 10 (2) ○

- 1 **보기**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가√발을√저에게√내밀었습니다.’로 띄어 읽어야 한다.
 2 지호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은 ‘지호는 행복합니다.’이다. 이 문장은 ‘누가’에 해당하는 ‘지호가’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행복합니다.’로 나눌 수 있다.
 3 밑줄 친 낱말들은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로,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4 시원한 앵두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다고 하였다. 수박화채를 먹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어야 하므로 ‘사람들은√씨름 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로 띄어 읽어야 한다.
 6 이 글은 ‘발표 예정’에 대해 주장하는 글이다.
 7 친구가 말하는 동안에는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발표를 들으면서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발표 예절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8 ㉠을 실감 나게 읽으려면 ‘가장’을 강조하듯이 읽으며 주는 말의 느낌을 살린다.
 9 만약 주인공 가족처럼 내가 동네 세계여행을 떠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그 나라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써 본다.

채점 기준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타당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한다.

3.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단원 평가 1회

14~15쪽

1 ㉓

2 (1) ㉒ (2) ㉑ ㉑, ㉒은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말하였는데 ㉒은 이와 관련 없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3 (1) ㉑ (2) ㉒, ㉑ 4 ㉓

5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6 보고 싶은 할머니

7 ㉑

8 ㉑

9 줄넘기

10 (1) ㉑ (2) ㉒

1 글에 제비가 집을 왜 나무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짓는지 궁금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제비가 짓는 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

2 ㉑ 제비 집에 대한 이야기는 글의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

채점 기준 ㉑, ㉒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쓰면 정답으로 한다.

3 문단 ㉑에서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은 ㉑이고, 중심 문장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뒷받침 문장은 ㉒과 ㉑이다.

4 플라스틱은 썩는 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땅이 오염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5 우리 학교에 다양한 장소가 있다는 중심 문장이 먼저 나온 뒤, 어떤 장소가 있는지 뒷받침 문장으로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6 글쓴이는 할머니가 누른 비밀번호 소리인 ㉑을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표현했다.

7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이므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경험이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다.

8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9 은솔이와 한솔이는 줄넘기를 사야 해서 선글라스를 살 수 없다고 했다.

10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까닭이 나온다.

단원 평가 2회

16~17쪽

1 ㉓

2 가

3 ㉑

4 ㉒, ㉑

5 ㉑

6 ㉑

7 ㉑

8 꼬마 아이

9 ㉑

10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발을 사 주시며 ‘이 맛에 돈을 벌지.’라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우리 할머니도 직접 만들어 주신 간식을 내가 잘 먹으면 기뻐하시는데 그런 할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1 글 가는 홍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 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2 글 가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았다.

3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한다.

4 중심 문장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이다. ㉑은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의 중심 문장이다. 중심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은 ㉒과 ㉑에 나와 있다.

5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6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가 문단 내용을 대표하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므로 중심 문장이다.

7 중심 문장에서 우리 학교에 다양한 장소가 있다고 말한 뒤 교실, 도서관, 강당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어서 보건실을 소개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가장 어울린다.

8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로 신발을 사 주었으므로, 할아버지의 손자인 꼬마 아이가 신발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다.

9 아이가 자라서 신발이 작아지자 금세 버려졌는데 새 것 같아 분실물 센터로 오게 되었다.



10 이 글에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도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 안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쓰고 그와 관련된 까닭을 적절히 쓰면 정답으로 한다.

서술형 평가

18쪽

- 1 예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려면 ㉠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 2 예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을 찾는다.
- 3 예 동물마다 무서울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 4 예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과 선물 받은 사람들이 보였다.
- 5 (1) 예 선글라스를 쓰자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여서 놀란 한솔이와 은솔이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2) 예 왜냐하면 평범한 선글라스인 줄 알고 썼는데 눈앞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진다면 나라도 깜짝 놀라고 신기할 것 같기 때문이다.

1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 때문에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았다.' 또는 '책의 내용과 관련 없다.'와 비슷한 내용을 쓴 경우	6점

2 중심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다.

채점 기준	점수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쓴 경우	6점

3 이 글은 개, 고양이, 달팽이를 예로 들어 동물들이 무서울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점수
'동물마다 무서울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를 쓴 경우	6점

4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에서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다고 했다.

채점 기준	점수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 '선물받은 사람들'을 모두 쓴 경우	6점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 '선물받은 사람들' 중 하나만 쓴 경우	3점

5 재미 또는 감동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썼거나 까닭이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연결되지 않게 쓴 경우	3점

평가
교재

수행 평가

19쪽

- 1 예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셨기 때문이다.
- 2 예 할머니가 문 앞에서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 / 아이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
- 3 (1) 예 할머니가 비밀번호 누르셨던 소리를 '보고 싶은 할머니.'로 표현하여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비슷해 보이도록 쓴 것이 감동적이었다.
(2) 예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 놀랍기 때문이다.

1 손이 느린 할머니가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셨기 때문에 퍽퍽 떨어진 소리로 들린 것이다.

채점 기준	점수
비밀번호가 퍽퍽 떨어진 소리로 들린 까닭을 할머니의 느린 행동과 적절하게 연결하여 쓴 경우	10점

2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로, 이와 관련된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롭게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과 관련된 장면을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3 시에서 재미있던 부분,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까닭을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하나만 썼거나 까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	5점

4.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단원 평가 1회

20~21쪽

- 1 ⑤ 2 ②, ⑤ 3 바다의 날
4 (2) × 5 무역
6 (1) 콩 (2) 메주 7 (2) ○
8 ② 9 ①, ③
10 예 자춧빛 감자꽃이 신기했을 것이다.

- 1 매미가 액체를 내뿜으면 몸이 가벼워져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
- 2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썼으며, 밑줄과 별표 기호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또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
- 3 다른 기념일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날'을 알려 주는 영상 자료이므로, 바다의 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볼 것이다.
- 4 (1)과 (3)은 바다의 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이 5월에 있는 여러 기념일의 이름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 5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일.'을 뜻하는 낱말은 '무역'이다.
- 6 글의 첫 문장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알 수 있다.
- 7 메주를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생긴다고 하였다.
- 8 ㉠, ㉡, ㉢은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 ㉤은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다.
- 9 ② 술이는 지금 캐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가 때가 되면 캐자고 하였다. ④ 술이가 할머니께 잘 가꿔 달라고 하였다. ⑤ 할머니와 아빠는 자춧빛 꽃이 핀 감자에 무엇이 달리는지 알고 있지만 알려 주시지 않았다.
- 10 하얀 감자꽃들 사이에 피어난 자춧빛 감자꽃을 보고 술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여 쓴다.

채점 기준 자춧빛 감자꽃을 신기해하는 마음, 자춧빛 감자꽃을 캐고 싶어 하는 마음, 자신의 감자가 생겨 기쁜 마음 등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단원 평가 2회

22~23쪽

- 1 ④ 2 ⑤ 3 (3) ○
4 (1) 예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다. (2) 예 밑줄이나 기호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
5 주원 6 ⑤
7 (1) ㉠ (2) ㉡, ㉢
8 (2) ○ 9 ③ 10 (3) ○

- 1 메모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말한다. 보거나 들은 것 중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면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 2 매미는 배 밑의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다고 하였다.
 - 3 메모의 제목은 글의 내용에 어울리게 써야 한다. 글 ㉠은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해 알려 주는 글이므로 ㉠에 들어갈 제목으로는 '매미가 내뿜는 액체'가 알맞다.
 - 4 ㉠은 제목을 쓰고, 글 ㉡에서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숫자(1, 2, 3)를 사용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그리고 '액체를 내뿜으며 몸을 보호함.' 부분을 밑줄과 별표 기호를 활용해 강조했다.
- 채점 기준** 제목을 쓴 내용, 숫자로 정리한 내용, 밑줄과 별표 기호로 강조한 내용 등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는 내용이므로 주원이가 설명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 6 ①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 ② 따뜻한 곳에서 말린 메주를 벋짚으로 묶어 매달아 놓는다. ③ 소금물과 함께 항아리에 넣은 메주를 건져 내 된장을 만든다. ④ 붉은 고추와 쏙은 잡균을 없애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7 ㉠이 문단 ③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고, ㉡과 ㉢은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다.
 - 8 술이는 두더지 굴 옆에서 자춧빛 감자를 찾았다. 할머니에게 감자를 높이 들어 자랑하는 말에서 술이가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 '주렁주렁'이 알맞다.

- 10 ‘잡채, 나물, 약과’는 명절 음식, ‘설날, 단오, 동지’는 명절의 종류, ‘웃놀이, 널뛰기, 연날리기’는 명절에 하는 놀이다.

서술형 평가

24쪽

- 예 민속 박물관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갔을 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간단하게 정리했다.
- (1) 예 낱말로만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2) 예 ‘신맛, 친척’처럼 틀린 내용을 썼다.
- 예 제목: 매미가 내뿜는 액체 / 1. 배 밑의 구멍에서 액체를 내뿜음. / 2. 액체를 내뿜으며 몸을 보호함. ☆ / 3. 액체는 단맛이 남.
- 예 자신의 감자를 캐러 할머니 밭에 갔지만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하였다.
- 예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했을 것이다.

- 1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써 본 경험들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점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한 경험을 쓴 경우	6점

- 2 중요한 내용을 낱말로만 정리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단맛’을 ‘신맛’, ‘친척’을 ‘친척’이라고 적는 등 틀린 내용을 썼다.

채점 기준	점수
메모에서 부족한 점을 두 가지 모두 적은 경우	6점
메모에서 부족한 점을 한 가지만 적은 경우	3점

- 3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쓴다.

채점 기준	점수
보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알맞게 정리한 경우	6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보기의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거나, 정리한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경우	3점

- 4 술이는 자신의 감자를 캐러 할머니 밭으로 갔지만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에서 술이에게 일어난 일을 알맞게 정리해 쓴 경우	6점

- 5 골이 나서 감자를 획 던져버리는 술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화가 나는 마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등 술이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하여 쓴 경우	6점

평가
교재

수행 평가

25쪽

- 예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 (1)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2)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3) 그다음으로, 메주를 빻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 예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찢은 콩 반죽으로 메주를 만들어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 그리고 잘 말린 메주를 빻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서너 달 매달아 놓는다. 그런 다음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힌 뒤 메주를 건져 내 된장을 만든다.

- 1 이 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인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채점 기준	점수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쓴 경우	5점

- 2 각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본다. 어떤 문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므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구분하도록 한다.

3 중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중요한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이때 간추린 글에는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간추린 글이 한 편의 글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어 주는 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26~27쪽

- 1 ① 까마지만 물을 마셨다. ② 까미는 물병을 밀었지만 꺾쪽도 하지 않았다. ④ 까미만 실망하여 집에 돌아갔다. ⑤ 까망이는 물병 속에 돌멩이를 집어넣어 물을 마실 수 있었다.
- 2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에서 ‘성질이 급한’이 까미의 성격을 나타낸 말이다.
- 3 물병을 한 번 밀어 보고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간 까미는 포기가 빠른 성격이다. 물 마실 방법을 생각해 내어 마침내 물을 마신 까망이는 끈기 있는 성격이다.
- 4 줄무늬는 까먹어도 괜찮지 않다며,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결심했다.
- 5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줄무늬의 모습에서 자주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6 글을 받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에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 글 ㉠는 작슨이 할아버지께 쓴 편지이므로 쓴 사람 뒤에 ‘올림’을 붙여야 한다.

7 할아버지는 잿슨을 ‘꼬마’로 표현하며, 잿슨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 장미가 짓밟혀 화가 난 잿슨을 걱정하며 장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8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글의 끝에 추신을 쓴다.



- 9 글 ㉠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글 ㉡은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쓴 글이다.
- 10 글 ㉢에서는 ‘속상했거든요,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를, 글 ㉣에서는 ‘축하드려요,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걱정되고 슬펐어요, 사랑해요.’를 찾을 수 있다.

단원 평가 2회

28~29쪽

- 1 (1) ㉠, ㉡, ㉢ (2) ㉣, ㉤, ㉥
2 ㉤ 3 ㉢ 4 (2) ㉠
5 예 우리 가족을 구해 준 다람쥐들에게 고맙다. 이제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다람쥐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6 소진 7 ㉡
8 달리기 연습, 응원 9 ㉠
10 (1) 성급하다 (2) 끈기 있다 (3) 무뚝뚝하다

- 1 ㉣, ㉤, ㉥은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 ㉡, ㉢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품이나 성질인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 2 지진이 났을 때 산꼭대기에 있는 줄무늬네 집에 다람쥐들이 와서 기둥에 깔린 줄무늬를 구해 주었다.
- 3 약초 할머니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 약초 할머니는 다정한 성격이다. ‘다정하다’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다.’라는 뜻이다.
- 4 집이 무너진 뒤 줄무늬가 이제 뭘 먹고 살지 걱정하자, 약초 할머니는 다람쥐들이 여기저기 물어 둔 도토리를 찾아 먹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 5 이 글에서 일어난 일과 다람쥐들이 한 일, 줄무늬의 마음 등을 생각해 보고, 자신이 줄무늬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써 본다.

채점 기준 다람쥐들에게 도움을 받은 상황을 떠올리며 줄무늬의 처지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6 글 ㉣에서 할아버지는 장미는 멀쩡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주말에 잭슨이 집에 오면 새 장미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하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셨다.

- 7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잭슨의 모습으로 보아 정직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8 하윤이는 달리기 대회를 앞두고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는 수환이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 9 ‘바쁘지?’는 수환이에게 묻는 말로,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10 각각의 낱말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쓰이는지 생각해 보고, 알맞은 뜻을 찾아본다.

평가
교재

서술형 평가

30쪽

- 1 예 성질이 급하다. / 포기가 빠르다.
2 예 축구공이 할아버지 정원으로 들어가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다.
3 예 배려심이 많다. 잭슨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오히려 잭슨의 축구 실력을 칭찬해 주었기 때문이다.
4 예 까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글이다.
5 예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면 좋겠어. 빨리 네가 마실 물을 찾길 바랄게. 기운 내!

- 1 물병을 발견하자마자 무작정 물병을 미는 행동에서 성질이 급한 성격임을, 또 희망이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포기가 빠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성질이 급하다.’, ‘포기가 빠르다.’ 등 까미의 성격을 알맞게 파악해 쓴 경우	6점

- 2 잭슨은 축구공이 할아버지 정원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점수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려 한다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 3 할아버지는 장미는 걱정 말라며 잭슨의 실수를 이해해 주고, 골을 많이 넣은 잭슨에게 축구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이러한 말과 행동에서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성격과 까닭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성격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 4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까미를 걱정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채점 기준	점수
'까미'와 '걱정스러운 마음'을 모두 쓴 경우	6점
'까미'와 '걱정스러운 마음'을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3점

- 5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까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어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포함하고, 앞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3점

수행 평가

31쪽

- 1 예 내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피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졌는데 괜찮다고 말해 주었던 준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 2 (1) 예 준우
(2) 예 고마운 마음
(3) 예 내 실수로 피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졌는데 준우가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친구들이 화낼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4) 예 고마웠어, 마음이 놓였어, 정말 고마워.
- 3 예 준우에게 / 준우야 안녕? 나 선주야. 어제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를 할 때 내가 실수해서 우리 팀이 졌잖아. 그때 괜찮다고 말해 줘서 고마웠어. 친구들이 나한테 화낼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네가 먼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 정말 고마워! 다음 경기 때에는 더 잘할게. / 선주가

- 1 무슨 일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려 쓴다.

채점 기준	점수
무슨 일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과,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생각하여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번 문제에서 떠올린 상황에 맞게 글을 쓸 계획을 (1)~(4)에 모두 알맞게 정리한 경우	10점
1번 문제에서 떠올린 상황에 맞게 글을 쓸 계획을 (1)~(4)에 모두 알맞게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는 적절하게 정리한 경우	5점

- 3 받는 사람,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 전하고 싶은 마음, 쓴 사람 등 마음을 전하는 글에 들어가는 내용을 생각하며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받는 사람,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 전하고 싶은 마음, 쓴 사람 등이 모두 잘 드러나게 쓴 경우	15점
받는 사람,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 전하고 싶은 마음, 쓴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빠진 경우	5점

6. 자신 있게 읽고 써요

단원 평가 1회

32~33쪽

- 1 ㉔ 2 나 3 홍학
4 ㉔, ㉕ 5 사실 6 ㉔
7 의견 8 협동 로봇
9 예 내 생각도 글쓴이의 생각과 비슷하다. 가까운 미래에 학교에도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㉔

- 글 ㉔와 나 모두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진 일을 쓴 글이다.
- 글 ㉔와 나 는 같은 일을 겪었지만 생각이 다르다. 글 나 에서 선우는 졌지만 최고의 경기라고 하였고 글 ㉔ 에서 다인이는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였다.
- 글쓴이는 동물원에서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고,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은 사실이다.
- 첫 번째 문장에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서'라는 까닭이 나와 있다.
- ㉔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의견이다.
-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협동 로봇에 대한 글이다.
- '(이)라고 생각한다', '이/가 궁금하다', '하면 좋겠다.' 등의 문장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미래에는 지금보다 협동 로봇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며,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0 ㉔은 글을 다 쓰고 나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단원 평가 2회

34~35쪽

- 1 ㉕ 2 (1) 사실 (2) 의견
3 ㉔ 4 ㉔ 5 사실
6 예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말한다.
7 다양한 8 ㉔ 9 다
10 ㉔, ㉕

- 주원이와 지호는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 주원이는 현재 있는 일에 대해, 지호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찾는다. ㉔, ㉔, ㉔, ㉕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인 사실이다.
 -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깨끗한 물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부분이므로 사실이다.
 - 첫 번째 문장에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하였다.
- 채점 기준**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이라고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제시된 뜻은 '다양한'의 낱말 뜻이다.
 - ㉔, ㉔, ㉔, ㉕는 글에 드러난 사실을 단순히 서술한 것이다. ㉔은 '신기하다'라는 느낀 점을 말하였다.
 - 글 다는 '속상했지?'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썼다.
 -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 써야 한다.

평가
교재

서술형 평가

36쪽

- 예 내가 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 글의 양은 얼마만큼 쓸까?
- (1) 예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여자는 열두 명이다.
(2) 예 우리 반 친구들이 언제나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 (1) 예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2) 예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 (1) 예 협동 로봇에 인공 지능 기술을 더할 수 있다.
(2) 예 협동 로봇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공 지능 기술이 사용되는지 궁금하다.
- 예 누가 쓴 글인지 밝히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쓴다. / 읽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쓴다.

- 1 이 밖에도 글쓰기 목표를 무엇으로 할지, 무엇에 대해 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채점 기준	점수
'내가 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글의 양은 얼마만큼 쓸지', '글쓰기 목표를 무엇으로 할지', '무엇에 대해 쓸지' 중 한 가지를 언급한 경우	6점

- 2 사실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다.

채점 기준	점수
사실과 의견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사실과 의견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 3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부분은 사실이고,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으면 의견이다.

채점 기준	점수
사실과 의견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사실과 의견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 4 글에서 새롭게 안 사실을 쓰고,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거나 느낀 점을 생각해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 새롭게 안 사실'과 '(2) 새롭게 안 사실과 관련한 더 궁금한 점 또는 느낀 점'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 5 이 쪽지에는 누가 쓴 글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

채점 기준	점수
'누가 쓴 글인지 밝혀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읽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야 한다.' 등 고쳐야 할 점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37쪽

- (1) 사실 (2) 예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 예 나도 소금이 흔하다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 1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내용이면 사실,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면 의견이다. ㉠은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사실'이라고 쓰고 (2)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1)에 '사실'이라고 썼지만 (2)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 2 '정말 놀랍지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와 같이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문장이 의견이다.

채점 기준	점수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의견을 적절하게 찾아 쓴 경우	10점

- 3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고, 글쓴이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소금의 소중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자신의 의견을 썼지만 내용이 다소 어색한 경우	5점